

이대호 · 최지만 맞대결 나란히 안타

김현수 볼넷 · 몸에맞는 공으로 첫 멀티 홈런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메이저 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2루타를 치며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을 작성한 가운데 최지만(25·LA 에인절스)도 맞대결전에서 안타를 추가했다.

이대호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의 템피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2016 MLB 시범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두 타석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한 이대호의 시범경기 타율은 0.222(18타수 4안타)에서 0.286(21타수 6안타)으로 올라갔다.

2루타와 멀티히트 모두 미국 진출 이후 처음이다. 4번째 타점과 5번째 득점도 기록했다.

에인절스의 최지만은 1루수 겸 6번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를 쳤다.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전 안타를 때렸다. 하지만 후속 타선의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최지만의 시범경기 타율은 0.259에서 0.258(31타수 8안타)로 1리 낮아졌다.

경기는 4-4 무승부로 끝났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시범경기 첫 멀티 홈런(경기 두 차례 홈런 이상)에 성공했다. 최수 무안타 2사구 2삼진

시범경기 11번째 경기 만에 첫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몸에 맞는 공으로도 한 차례 1루를 더 밟아 처음으로 1경기 두 차례 출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이후 이어오던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중단된 김현수의 타율은 종전 0.109에서 0.097(31타수 3안타)로 떨어졌다.

김현수는 팀이 1-0으로 선취점을 올린 1회초 1사 1, 2루의 타점기회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지만 상대 선발투수 우완 제시 차베스에게 삼진을 당해 물러났다.

4회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토론토의 두 번째 투수 팻 밴딕에게 몸에 맞는 공으로 1루를 밟았다. 시범경기 두 번째 몸에 맞는 공 이후 크리스티안 워커의 2루타로 3루까지 진출했지만 이후 3타자 모두 발타로 물러나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마지막 타석인 8회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완 웨이드 르블랑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시범경기 11경기, 무려 34번째 타석 만에 선구안을 발휘한 김현수는 이후 대주자 L.J. 호스와 교체됐다.

볼티모어는 9회말 토론토에 동점을 허용해 6-6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3경기 연속 휴식을 취했다. 팀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5-4로 승리했다.



볼티모어 김현수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볼넷과 몸에맞는 공으로 시범경기 첫 멀티 홈런 기록

/김민근기자

프로야구 공식사용구 1차 수시검사 합격

올해 KBO리그 공식사용구가 1차 수시검사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6일 "올해 KBO리그의 단일 경기사용구 공인 업체인 스카이다인에서 제작된 야구공 중 무작위로 샘플 3타를 수거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시험소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샘플 모두 제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KBO는 올해부터 수시검사를 통해 단일 경기사용구 업체가 야구공 공인규정의 제조 기준을 연간 1회 위반시 제재금 1000만원, 2회 위반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위반시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동안 총 4회 위반에도 즉각 공인을 취소하는 등 야구공 공인규정을 더욱 강화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KBO와 스카이다인은 지난해 12월 경기사용구 2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스카이다인의 AAK-100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범경기와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까지 KBO리그 전 경기에 사용된다.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경기사용구를 KBO가 직접 검사 후 봉인해 각 구단에 공급하고, 경기 전 심판원이 봉인을 해제한 야구공에 한해서만 경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대학축구 인천국제공항 U리그 오늘 개막

대학축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6 인천국제공항 U리그가 오는 17일 개막해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9회째를 맞은 U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다.

모두 78개 팀이 출전해 9월말까지 권역리그를 치르고 이후 32강 왕중왕 토너먼트로 챔피언을 가린다. 권역리그는 7~8개 팀씩 10개조로 나뉘어 치러진다.

올해도 개막전부터 흥미로운 대결들이 예고돼 있다.

'디펜딩 챔피언' 용인대는 신생팀인 칼빈대와 맞붙는다.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지난해 준우승팀 성균관대는 대회 북영으로 꼽히는 제주국제대와 경기를 치른다.

U리그는 지난 2008년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공부하는 선수 육성, 대학 캠퍼스 내 축구 열기 확산 등을 목표로 출범했다. 첫 해 수도권 10개 대학이 참가하는데 그쳤으나, 매년 참가팀이 늘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는 세종대, 고구려대, 칼빈대, 서울사이버한국외국어대 등이 새로이 합류했다.

올해부터는 인천공항공사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내셔널리그, 유소년클럽리그에 이어 U리그도 지원한다.

/김민근기자

마마무, '인기가요' 시작으로 각종 음악방송 정상 '고공행진'

미국·프랑스·핀란드 등 아이튠스 K팝 차트 상위권 휩쓸며 대표 걸그룹으로 떠올라

그들 '마마무'가 본격적인 1위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 6일 SBS TV '인기가요'를 시작으로 벌써 음악방송에서 5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데뷔 후 첫 1위를 하고는 회사(RBW) 식구들이 전부 모여 삼삼할 회식을 했다.

"그날 리더 언니(솔라)가 '울지 말자' '왜 울어 이러면서 센 척 하더니'(휘인), '소감 말할 때는 자기가 먼저 울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상황이 기억이 안 나요'(화사), '앙코르 무대도 처음 해 보잖아요. 낯설어서 한 곡 다 하는지 여쭙보고'(문별)

2014년 '미스터 에메모'로 데뷔해 피아노엔 '음오아'에 히트곡 퍼레이드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정상으로 향하는 궤도를 밟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첫 번째 정규앨범 '멜팅(Melting)'으로 거둔 음원차트·음악방송 1위 등의 성과는 그 값진 결과물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소한 행동에도 더 자제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한다고요"(문별), "여기서 인일하게 생각하면 확 가라앉기 쉽잖아요. 이럴 때 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휘인)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핀란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의 아이튠스 K팝 차트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차세대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떠올랐다. 할리우

드 스타 클로이 모레츠가 마마무의 팬을 자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실감은 잘 안 나요. 외국 팬들을 만나 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좀 더 잘 돼서 해외 팬들을 만날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휘인)

16일 마마무는 미국 오스틴 벨몬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뮤직 페스티벌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의 'K팝 나이트 아웃' 쇼케이스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초청됐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 앨범으로 이런 성과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요."(휘인) /인진수 기자



각종음악차트 1위 행진을 하고있는 마마무

슈틸리케호 태국전, 27일 밤 9시30분 치러

원정으로 치러지는 슈틸리케호의 태국전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태국과의 친선경기가 오는 27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수랏탈라이시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한국은 29일 쿠웨이트와 국내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전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쿠웨이트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로 해당 경기가 취소됐다. 급히 상대를 모색한 대한축구협회는 때마침 스캐쥬이빈 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태국의 FIFA 랭킹은 118위로 한국(57위)보다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월드컵 2차예선 F조에서 4승 무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다. 역대전적에서는 한국이 30승7무9패로 크게 앞선다.

마지막 맞대결은 1998광복아시아게임 8강전으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한국은 두 명이 빠진 태국에 1-2로 역전패해 중도 탈락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